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

김신표*, 조현주**
한국경제예측연구소*, 용인송담대학교**

Analysis of Operational Effect of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

Shin-Pyo Kim*, Hyun-Joo Cho**

Korea Economy Forecasting Research Institution*
Yong-In Songdam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tasks and means of improving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culture and arts institutes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operation of public culture and arts institutes.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factor variables that impart effe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culture and arts institutes included (1) artistic value, (2) convenience and (3) organizational management, while the performance variable of public culture and arts institutes was (4) operational performance. Secondly, in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that explains the operational effects of public culture and arts institutes, convenience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were found to impart effects 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s. However, artistic value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operational performances. Therefore, these results of analysis imply tha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convenience, rather than artistic value, need to be fortified in order to elevate the operational performances of public culture and arts institutes.

Key Words : Public, Culture & Arts, Operational Effect, Arts Institu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대하였고, 지자체장 및 문화단체장

의 문화마인드를 기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관주도의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적인 문화와 예술의 창조 및 전문적인 운영, 경영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3]. 이로 인한 공공 문화예술기

* 한국경제예측연구소 소장

** 용인송담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교수(교신저자)

접수일(2016년 11월 9일), 수정일(1차: 2016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2016년 12월 6일)

관의 운영은 정부의 자금이 2009년 전체예산에서 78%이상 차지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재정자립도는 14.9%에 불과하다[6]. 따라서 이러한 공공 문화예술기관 운영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보다 이상적인 운영체도를 도입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으로 정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한 실증 분석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현황

2012년 기준 전국의 공연시설은 총 944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52개, 수도권이 509개로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4]. 이 중에서 2012년 기준 공공 문화예술기관은 전국에 214개가 운영되고 있다[6].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운영형태는 <표 2-1>과 같이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고, 민간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영형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공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교육기관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2.2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재정수입 구조

문화예술기관의 수입은 <표 2-2>와 같이 공공 지원금, 자체수입, 기부 및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6]. 2009년 기준 164개 문화예술기관의 총수입은 약 4,256천억원이며, 이 중에서 공공지원금은 약

<표 2-1> 문화예술기관 운영주체 구분

구분	종 류					
	공공			민간		
운영주체	광역 지 자 체	기 초 지 자 체	공 기 업	재 단 법 인	사 단 법 인	교 육 기 관
	직접운영			위탁운영		

출처 : 2010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 (2009년 기준).

3,332억원인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913억 원으로 21.5%에 지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기관의 평균 수입으로는 공공지원금이 약 20억 원, 자체수입이 약 6억 원, 기부·후원금이 약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6].

<표 2-2> 2009년 문화예술기관 수입구조

구분	총계	기관당 평균
총수입액	4,255.7억원	25.9억원
공공지원금액	3,331.7억원	20.3억원
자체수입액	912.9억원	5.5억원
기부 및 후원액	11억원	670만원

출처 : 2010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 (2009년 기준).

2.3 선행 연구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관련 대표적인 국내 외 선행연구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김미리, 김영태(2016)의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경영성과 영향 요인 분석[1], 한승준(2016)의 문화예술기관 경영 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11], 이혜숙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7], 김미리의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2], 이혜숙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분석[8], 문화체육관광부(2012.12)의 문화향수 실태조사[5], 조기숙(2012)의 창의성을 통한 몸과 경영의 통섭적 고찰[9]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해외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Radbourne, Jennifer(2001)의 예술센터의 수요를 위한 새로운 풀 하우스 이론[12] 등을 들 수 있다.

3. 연구설계

3.1 모형 및 가설의 설정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인변수와 성과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요인 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예술성, (2)편의성, (3)마케팅, (4)조직관리, (5)전문성인 5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과 변수는 (6)재무적 성과와 (7)비재무적 성과인 2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들 요인 및 성과 변수에 해당하는 측정변수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예술성은 공연 프로그램, 작품성, 호응도, 유명 공연자, 무대 시설로 설정하고, (2)편의성은 고객 서비스, 편의시설, 대중교통, 주차시설로 설정하며, (3)마케팅은 마케팅 기법, 브랜드, 홍보로 설정하고, (4)조직관리는 리더십, 인사관리, 조직관리, 민간 위탁운영 관리, 파트너 기관 관리로 설정하며, (5)전문성은 기관장의 전문성, 기획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로 설정하고, (6)재정적 성과는 재정자립도, 기부금, 공연 수익률로 설정하며, (7)비재무적 성과는 공연장 가동률, 객석 점유율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검토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을 위한 요인변수와 운영성과변수가 포함된 측정변수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이 연구에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 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 조직관리는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조직관리는 예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조직관리는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1>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 틀

구분	잠재변수	측정변수
요인 변수	예술성	공연 프로그램
		작품성
		호응도
		유명 공연자
		무대 시설
	편의성	고객서비스
		편의시설
		대중교통
		주차시설
	마케팅	마케팅 기법
		브랜드
		홍보
	조직관리	리더십
		인사관리
		조직관리
민간 위탁운영 관리		
파트너 기관 관리		
전문성	기관장의 전문성	
	기획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성과 변수	회계적 성과	재정자립도
		기부금
		공연 수익률
	비회계적 성과	공연장 가동률
		객석 점유율

가설4 : 편의성은 예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 편의성은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 예술성은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사 설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모집단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214개 문화예술기관이다[7].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한 11개 공공문화예술기관의 316명의 공공문화예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316부였으나, 이 중에서 결측치, 무응답, 성의 없는 응답 등의 설문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수는 307부이다.

4. 실증 분석

4.1 요인 분석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은 최종적으로 307부의 설문지에 20개의 영향요인 변수와 5개의 운영성과 변수를포함된 합한 총 25개의 측정변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제1차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량이 6 번 고객서비스, 10번 마케팅 기법, 11번 브랜드, 12번 홍보, 13번 리더십, 20번 마케팅 전문가, 25

번 객석 점유율인 7개 측정변수가 0.55 이하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0.55 이하로 나타난 변수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18개 측정변수들만을 가지고 다시 제2차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 적재량은 <표 4-1>과 같이 나타나 모두 기준치 0.55 이상으로 산정되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변수를 토대로 요인분석 된 결과, 요인 적재량은 전부 최소 0.571 이상으로 나타나 허용치인 0.55를 초과하여 요인 적재량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요인적재량의 최소 기준치는 적어도 0.4 이상이나 여기서는 보다 엄격하게 0.55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평균 신뢰성 검증을 위한 크롬바하 알파 계수 값은 통상적으로 0.7 이상이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 크롬바하 알파 값은 모두 0.791 이상으로 산정되어 기준치 0.7을 초과하고

<표 4-1> 요인분석 결과

구분	측정변수	예술성	편의성	조직관리	운영 성과	크롬바하 알파 값
예술성	기획 전문가	0.703	0.445	0.282	0.095	0.890
	작품성	0.721	0.475	0.225	0.129	
	호응도	0.698	0.431	0.228	0.104	
	기관장 전문성	0.742	-0.058	0.330	0.124	
	기획인력 전문성	0.621	0.189	0.262	0.413	
	공연 가동률	0.571	0.203	0.135	0.376	
편의성	유명 공연자	0.291	0.600	0.172	0.241	0.890
	무대시설	0.111	0.742	0.111	0.307	
	대중교통	0.231	0.658	0.236	0.058	
	주차 시설	0.171	0.680	0.390	0.255	
조직관리	편의 시설	0.172	0.433	0.595	0.023	0.884
	인사 관리	0.285	0.159	0.734	0.345	
	조직 관리	0.260	0.183	0.749	0.312	
	위탁 관리	0.251	0.254	0.751	0.251	
	파트너기관 관리	0.327	0.227	0.688	0.246	
운영성과	재정자립도	0.120	0.207	0.286	0.835	0.878
	기부금	0.125	0.271	0.409	0.755	
	공연 수익률	0.371	0.189	0.168	0.74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고유 값과 누적 고유 값

구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1	9.11	50.59	50.59	9.11	50.59	50.59	3.46	19.21	19.21
2	1.38	7.67	58.25	1.38	7.67	58.25	3.40	18.88	38.09
3	1.11	6.18	64.43	1.11	6.18	64.43	3.01	16.72	54.81
4	1.01	5.61	70.05	1.01	5.61	70.05	2.74	15.23	70.05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8개의 측정항목을 토대로 분석된 요인변수의 수는 (1)예술성, (2)편의성, (3)조직관리, (4)운영성과인 4개의 변수로 도출되었다.

앞서 요인분석된 고유 값 및 누적 고유 값은 <표 4-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2>에서 고유 값은 모두 1이상으로 산정되어 4개의 요인 변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요인으로 도출된 4개 요인에 대한 누적 값은 전체의 70.05%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4.2 구조분석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을 위해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와 운영 성과변수 간의 구조적인 관계 탐색은 기본적으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모델 내에 잠재 변수와 경로계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형 탐색 및 수정 반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합 모델에 도달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 구조모형은 <그림 4-1>과 같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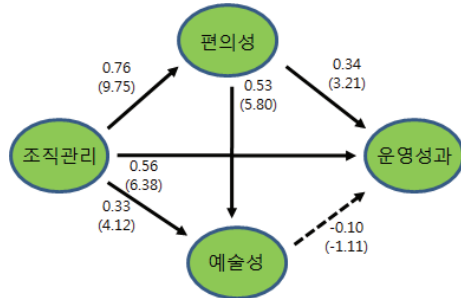
<그림 4-1>에서 추정된 구조모델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에서 자유도 값은 낮을수록 좋으며, 통상적으로 3 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3.21로 기준치 3을 초과하나 3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RMSEA는 통상적으로 0.1이하인데 0.0851, CFI는 0.9 이상인데 0.973, NFI는 0.9 이상인데 0.962, NNFI는 0.9 이상인데 0.968, PNFI는

<그림 4-1> 추정된 구조모형



주 : () 는 t값

0.6에서 0.9사이인데 0.811, IFI는 0.9 이상인데 0.973, RFI는 0.9 이상인데 0.955로 나타나 추정된 구조모형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모형 적합도 검정

구분	통계치
자유도	129
카이제곱	414.62
카이제곱/자유도	3.21
RMSEA	0.0851
CFI	0.973
NFI	0.962
NNFI	0.968
PNFI	0.811
IFI	0.973
RFI	0.955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운영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4-4>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 행렬에서 비대각 항의 값이 0.8을 초과하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표 4-4>에서는 비

대각 항의 값은 가장 큰 값이 0.777로 기준치 0.8 보다 낮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행렬

구분	예술성	편의성	조직관리	운영성과
예술성	1.000			
편의성	0.777	1.000		
조직관리	0.729	0.757	1.000	
운영성과	0.580	0.694	0.753	1.000

마지막으로 <그림 4-1>에 포함된 구조변수들 간의 경로별 가설을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가설검정 결과

연번	가설	검정 결과
1	가설 1 : 조직관리는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락
2	가설 2 : 조직관리는 예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락
3	가설 3 : 조직관리는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락
4	가설 4 : 편의성은 예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락
5	가설 5 : 편의성은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락
6	가설 6 : 예술성은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이상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 분석에서 구조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에서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크게 (1)예술성, (2)편의성, (3)마케팅, (4)조직관리로 보고, 운영성과 변수는 주로 (5)전문성, (6)재정성과, (7)공연성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연구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는 (1)예술성, (2)편의성, (3)조직관리 변수이고 운영성과 변수는 (4)운영성과임이 밝혀졌다.

둘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2)편의성과 (3)조직관리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편의성은 (4)운영성과뿐만 아니라 (1)예술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3)조직관리 변수는 (4)운영성과뿐만 아니라 (1)예술성과 (2)편의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예술성은 (4)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1)예술성과 (4)운영성과를 높이면 (2)편의성과 (3)조직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2)편의성만 높이기 위해서는 (3)조직관리만 강화해야 하는 구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일 방안을 제안해 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통상적으로 크게 (1)예술성, (2)편의성, (3)마케팅, (4)조직관리, (5)전문성이고, 운영성과변수는 (6)재정성과, (5)공연성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는 (1)예술성, (2)편의성, (3)조직관리이고,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성과변수는 (4)운영성과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둘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운영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분석에서 편의성은 운영성과뿐만 아니라 예술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관

리 변수도 운영성과뿐만 아니라 예술성과 편의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술성은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성이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술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와 편의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공공 문화예술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보다 이상적인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본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문화예술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는 전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까지 이루어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김미리, 김영태(2016),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경영성과 분석, 대한회계학회, 제21권 제1호, 195-219면.

[2] 김미리(2014),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학위 논문.

[3] 문웅(2006.8), 「공공 공연장의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경영 전공, 박사학위 논문.

[4]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공연예술실태조사.

[5] 문화체육관광부(2012.12), 「문화향수실태조사」, 46-125면.

[6]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 문예회관 운

영현황 조사(2009기준)」.

[7] 이해숙(2014),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1호, 23-32면.

[8] 이해숙(2015), 공공 문화예술기관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9] 조기숙(2012), 「창의성을 통한 몸과 경영의 통섭적 고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0.

[11] 한승준(2016), 문화예술기관의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1호, 125-146면.

[12] Radbourne, Jennifer(2001), "Full house theory: A new theory for assessing demand for arts centers",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p.264.

김신표(Shin-Pyo Kim)



- 2009년 2월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경영정보학 박사)
- 1999년 ~ 현재 한국경제 예측연구소 소장
- 2012년 3월 : 금오공과대학교 건설링대학원 겸임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건설링대학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계량경제, 경영정보, 사업타당성 분석
- E-Mail : kefori@hanmail.net

조현주(Hyeon-Ju Cho)



- 2002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1998년 ~ 현재 :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경영전략, 성과분석, 정보시스템기획
- E-Mail : hjcho@ysc.ac.kr